

“당신의 삶, 영화가 되다”

지민(감독)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 공동체 상영을 원한다면?

영화 볼 친구 5명 모으기(최소 5인 이상 신청 가능) → 큐알코드 찍기 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방문, 또는 이 주소로 접속하기(sfwf-film.weebly.com) → 원하는 영화 고르기 → 신청하기 → 상영 링크 받기 → 영화 즐기기 → 후기 작성하기 → 주위에 소개하기
신청 문의 : 02-810-5072, 5484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성평등 네트워크와 시민 소통 공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성평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성평등 주제의 책을 찾아보고 싶다면? 성평등도서관 ‘여기’로

‘여기’는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함께 만든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입니다.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공간, 바로 이곳(Here)이라는 의미를 담은 국내 최초의 젠더 라이브러리입니다. 성평등을 주제로 한 단행본뿐 아니라 서울시와 유관기관의 정책자료, 여성단체 현장의 다양한 활동 자료를 젠더아카이브에 충실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주민등록·재직·재학 중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여성플라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www.genderlibrary.or.kr / 온라인 아카이빙 www.genderarchive.or.kr

상영
신청
무료

“성차별,
우리가 Cut할게!”



“새로운 이야기는 청년,
여성들의 것.
당신의 머리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손경화(감독)

당연한 일상, 페미니즘으로 zoom인!

청년여성 영상 활용가이드

작가권 이현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www.seoulwomen.or.kr Tel 02-810-5000 Fax 02-810-51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지금, 서울 청년여성, 무슨 고민 하니?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지난 2016-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Seoul Women's Walk' [2016]에서 '여성이다, 쿼' [2017], '여성이Cine' [2018]까지, 프로젝트 이름도 참여자들도 다양각색이었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결같았습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청년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렇게 제작된 작품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극영화와 다큐로 표현된 총 25편의 작품들에는 폭력, 섹슈얼리티, 가족관계 등 청년여성들이 주목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영상에서 청년여성들은 누군가에게 익숙한 일상이 자신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고, 문제적인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냅니다. 일터, 집, 학교 등 차별이 만연한 곳을 누비며 이들은 카메라를 들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들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년여성 영상 활용 가이드!

자, 영화로 청년여성 만날 준비 되셨나요?

숫자로 보는 청년여성 영상제작 프로젝트

2016-2018

프로젝트 기간 | 3년

37

참여인원 | 37인의 청년여성

25

작품수 | 총 25편

70

공동체상영회 횟수 | 70여회

3000

참여 관객수 | 3,000여명

COUNTLESS

청년감독 37인의 편집 소요시간

버려진 구성안과 시나리오의 수

청년감독 37인의 불면의 시간, 그리고 흘린 땀방울

25편의 최종 편집에서 잘려나간 컷 수

이런 분들께 청년여성 제작 영상을 추천합니다!

“성평등은 책으로만?!”

책과 함께 성평등 영상도 소개하고 싶은 도서관 사서

“성교육 말고 성평등 교육!”

10대들과 관점 있는 성교육 수업을 해보고 싶은 교사

“내 딸이지만 이해가 안 됨”

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자신이 보는 세상이 다르다고 느끼는 부모

“청년 문제, 여성의 시각에서 보자!”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청년 활동가

“후배들은 무슨 고민 할까?!”

영영페미니스트 활동가를 이해하고 싶은
선배 페미니스트 활동가

“우리 동네에도 젠더 관점이 필요해!”

지역주민과 성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을 활동가

“행사 주간에 뭐 하지?”

3·8 세계여성의 날, 7월 성평등주간, 11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등의
기념행사를 고민 중인 여성 단체 및 기관

“우리 책방 손님은 주로 여성들인데...”

여성 독자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독립서점 운영자

젠더 폭력



낙서

감독: 유승연, 정다솔 장르: 극영화 러닝타임: 7'40 제작연도: 2018
어느 주말, 승연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한 대기업의 입사 시험이 치러진다. 시험 다음 날 등교한 승연은 자신의 책상에 적힌 불쾌한 낙서를 발견한다.
#성폭력



보호

감독: 김하경, 박주은, 윤고은 장르: 극영화 러닝타임: 5'36 제작연도: 2018
오랜만에 엄마의 마용실에 들른 딸.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엄마는 딸의 머리를 엄격하게 하는데, 한 남자 손님이 들어온다.
#외모 #여성스러움



다른, 사람 제주여성영화제

감독: 김세영 장르: 다큐 러닝타임: 25'00 제작연도: 2017
일상에서 폭력은 여성들에게 익숙한 공포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공포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성혐오 #두려움



항상수족의 산책

감독: 정연빈 장르: 다큐 러닝타임: 26'58 제작연도: 2017
동두천의 미군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된 장소에서 여성들은 기지촌 여성들이 쓴 기록을 남긴다.
#동두천 #기지촌 여성들의 경험



터질 줄 몰랐어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감독: 이영림(태권소년) 장르: 극영화 러닝타임: 6'58 제작연도: 2016
클럽에서 만난 남자가 쫓아와 성추행을 하려 하자 그를 밀치고 파출소로 뛰어 들어간 여자. 그녀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성추행 #경찰서경험



영화학개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감독: 최서윤 장르: 극영화 러닝타임: 13'33 제작연도: 2016
주인공 여성은 어느 날, 자신을 스톱킹 하던 전 남자친구가 자신들의 관계를 소재로 만든 영화를 보게 된다. 그의 기억으로 짜깁기된 내용에 불편함을 느낀 그녀는 자신도 영화를 찍기로 결심한다.
#데이트폭력



환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감독: 천예민 장르: 극영화 러닝타임: 6'34 제작연도: 2016
혼자 사는 여성 예민은 더위와 먼지에 시달리지만, 앞집 남자 때문에 현관문도, 창문도 열지 못한다.
#여성1인가구 #안전

여성의 몸, 몸다양성



No Smile Women

감독: 송수민 장르: 다큐 러닝타임: 10'51 제작연도: 2017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잘 웃으면 해피 보인다고 비난받는 여성들. 웃음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은 어떨까?
#웃음 #감정노동



춤춰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 광주여성영화제 등

감독: 이푸른(푸푸) 장르: 다큐 러닝타임: 10'35 제작연도: 2016
누군가는 브라를 하지 않는 게 편하고, 또 누군가는 아름다운 브라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브라에 대한 여성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시각.
#가슴 #브래지어



육체미소동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감독: 정서인(도이리) 장르: 다큐 러닝타임: 18'20 제작연도: 2016
최악체 여성 4명의 축구 도전기. 격정적인 운동에 대한 로망으로 축구를 시작했지만, 훈련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운동을 이어가는 이들의 속내.
#여자축구 #운동하는여자



여자답게 싸워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여성인권영화제 제주여성영화제 등

감독: 이윤영 장르: 다큐 러닝타임: 34'23 제작연도: 2016
싸우는 걸 평생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감독 '나'의 고민.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나게 해준 주짓수, 그리고 자신의 싸움체질에 대한 고찰.
#자기방어 #주짓수 #몸활동

섹슈얼리티



연애편지

감독: 김하영, 박예지, 위정연 장르: 극영화 러닝타임: 12'06 제작연도: 2018
부모님아여름휴가를 간 사이 도경은 자신의 여자친구 하영을 집에 초대한다. 하영의 배웅길에 도경은 부모님이 집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는데 문득 하영의 편지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정체성 #가족관계



자잉아웃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대안단편영화제 다양한 당신의 영화제 무종영영화제 등

감독: 김예지 장르: 다큐 러닝타임: 18'32 제작연도: 2017
어릴 적 자잉하다 들켜 혼이 났던 '나'는 그 후에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 왜 숨겨야 하는 거지?
#자위 #엄마, 할머니 세대의 경험



P.E.T.

감독: 권오연 장르: 다큐 러닝타임: 26'08 제작연도: 2017
자신이 중성화수술을 받은 펫(Pet)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어린 여성들의 섹스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기.
#성적자기결정권



최후의 만찬

감독: 명희수 장르: 극영화 러닝타임: 15'33 제작연도: 2016
엄마에게 커밍아웃 하려고 하는 유진과 엄마의 저녁식사. 친밀하면서도 진실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가족관계의 한 단면.
#성정체성 #커밍아웃 #가족관계

페미니스트 정체성



나는 엄마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

감독: 임지영 장르: 다큐 러닝타임: 26'27 제작연도: 2017
1980년대 사회운동에 열심이었던 엄마와 2010년대를 살아가는 딸의 이야기. 모녀는 함께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엄마와딸 #페미니스트 #세대이해



문장의 얼굴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감독: 안예은 장르: 다큐 러닝타임: 13'52 제작연도: 2017
동국대 여성주의 교지 <오프너> 편집 위원들, 페미니스트 동료들과의 만남은 일상에 탈출구가 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져간다.
#페미니스트 #미래에 대한 불안



주의자 탈피하기

감독: 윤현진 장르: 다큐 러닝타임: 22'28 제작연도: 2017
페미니스트라면 강한 믿음과 활동력을 가져야 하지만, 매순간 갈등하는 현진.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있을까?
#페미니스트 #갈등



존쪽이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감독: 진선민 장르: 다큐 러닝타임: 18'44 제작연도: 2017
페미니스트 공동체 '존쪽', 여성들 간의 연대의 의미를 묻다.
#페미니스트 #연대



가장 긴 숙제

감독: 조소혜 장르: 다큐 러닝타임: 20'18 제작연도: 2017
신자유주의 경쟁력 200% 엄마 은숙과 느릿한 삶이 좋은 딸 소혜. 너무 다른 엄마를 이해하기 위한 소혜의 긴 숙제가 시작된다.
#페미니스트 #세대이해

여성 연대와 조직



여자는 여자의 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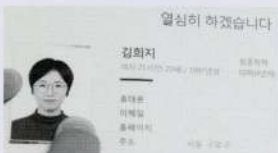
감독: 노헬레나, 신혜인, 유혜민 장르: 극영화 러닝타임: 21'44 제작연도: 2018
대학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졸업반 희진은 통역 알바를 하러 간다. 희진의 상사이자 만년대리 '지영'은 출장 업무 중 희진과 몇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
#직장생활 #여성연대



실패한 페미니스트

감독: 진달래 장르: 다큐 러닝타임: 9'14 제작연도: 2016
여성주의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 왕성하게 활동하다 문제를 겪는 진달래. 주위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여성주의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 #성장

노동



나로서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감독: 김희지 장르: 다큐 러닝타임: 22'06 제작연도: 2017
알바를 못 구한 지 6개월째. 급전이 필요하지만 알바 면접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이어진다. 알바 못 구하는 나, 이력서를 들고 친구들을 만났다.
#청년노동 #면접

종교



교회언니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고양여성영화제

감독: 박지원, 성임은 장르: 다큐 러닝타임: 22'43 제작연도: 2016
"이대로는 교회 못 다녀!" 20년 넘게 교회언니로 살아 온 지원과 임은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면서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페미니스트는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교회내성차별

공동체 상영회 최다 신청순위! * 2016 - 2018년 누적 합산



청년여성 영상 한 줄 평

<자밍아웃>

“ 할머니랑 엄마한테 자위에 대해 묻다니, 대단... 유구한 여성 자위의 역사! ”

<여자답게 싸워라>

“ '여자답게', 한동안 저의 슬로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육체미소동>

“ 운동장이 이렇게 큰데 그 중에 90%는 축구를 하는 남자들이 쓴다. 우리는 나무그늘 아래서 그들을 바라본다. (...) <육체미소동>을 보고 그게 되게 와 닿았다. ”

<춤춰브라>

“ '젖꼭지의 자유'는 왜 남성들에게만 부여되어 있을까요? ”
“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외쳐줘서 해방감과 상쾌함이 느껴지는 작품 ”

<다른, 사람>

“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공포를 잘 드러내주었다. ”

<No Smile Women>

“ 제가 웃음이 없고 눈으로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무 공감이 갑니다. ”

<나는 엄마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

“ 지금 세대가 아닌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멋진 분을 어머니로 두셔서 부럽습니다. ”

<가장 긴 숙제>

“ 평행선 같은 엄마에게 보내는 절절한 연애편지 ”